

결혼에서의 부부 폭력과 상호성의 원칙

하 재 성 교수
(Ph.D., 고려신학대학원)

국문초록

결혼은 인간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서, 여성과 남성의 인격적 평등과 상호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의 파워 구조는 쌍방향적이며 상호 존중적이어야 한다. 부부 폭력은 이와 같은 결혼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때로 한국 교회가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 본문을 상명하복의 전통적 가부장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해 왔으나, 성경은 오히려 매우 과격한 상호성과 파워의 자기 희생적 양도를 지시하고 있다. 부부 폭력의 치유와 안전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상호성과 힘의 균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복돋아 세우고, 침묵으로 가해자를 편들던 신학과 문화를 교정해야 한다. 목회 상담과 신학은 폭력의 피해자가 관계 속에서 형편에 따라 적극적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호 존중의 의사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목회 신학과 문화와 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고, 정의를 세우며, 신앙적 승화를 포함하여 건강한 상호성을 회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심단어 : 부부 폭력, 힘, 목회 신학, 상호성, 자기 주장

I. 여는 글

어느 날 아침 나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8살 난 딸 아이가 불쑥 “결혼하면 남자가 많이 힘들겠다”라고 말했다. 아마 그 전날 보았던 텔레비

전의 내용이 생각났던 것 같다. 이 뜬금없는 말에 나는 매우 궁금해서 물어 보았다. “결혼하면 왜 남자가 힘들까?” “여자를 지켜줘야 하니까……” 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어렵게 보였나 보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다시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 결혼하면 힘들 것 같아. 애기 낳는 거 아프잖아. 그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죽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딸아이의 기대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아직 어린 눈으로 보는 결혼이지만, 결혼 생활에는 남편과 아내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행복과 안전과 함께 보상이 동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부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이다. 현실의 결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어릴 적부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에서 온다. 여성부가 2008년 4월에 발표한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조사한 결과, 부부 폭력 발생률이 40.3%, 즉 다섯 가정에 두 가정이 부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3년 전 수치보다 다소 감소했다고 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정들이 부부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

폭력 자체의 심각성을 누구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삶의 안전을 위해 기대어야 할 가족이 반대로 폭력과 위협의 근원이 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을 것이다. 가정 폭력이나 강간의 가해자가 “남편이나 연인이라면, 그 트로마를 겪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진 사람이 정확히 위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²⁾

이 논문에서는 폭력이나 공격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만 아니라, 최소한의 긍정성, 즉 가족관계의 인격적 동등성과 상호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통하여 일방적 폭력에 대한 억제력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물론 일방적 폭행을 제지하려는 자기 주장이 초기에는 보복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의 근절을 위해 시급한 것은

가정 내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 폭력의 일방적인 희생을 정지시키고, 고착된 희생화 (victimization)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힘의 균형은 권력의 의도적 양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등 가정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법적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현대 목회 신학의 목표와 같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empowering), 불의한 파워에 대해서는 저항 (resisting) 함으로써 폭력의 일방적 희생으로부터 희생자를 보호해야 한다. 대개 폭력이 힘의 불균형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함으로 (appropriating) 표면화된다고 볼 때, 희생자 지지와 교육을 통한 힘 실어주기, 남성 위주의 법률 체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체계 속에 고착된 폭력성의 개인적, 사회 문화적 성격을 고찰하고, 자기 주장과 저항을 통한 가능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II. 펴는 글

1. 부부 폭력의 현실과 원인

Lederer와 Jackson은 결혼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움 (the stable satisfactory); 안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움 (the stable unsatisfactory); 불안하면서도 만족스러움 (the unstable satisfactory);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움 (the unstable unsatisfactory) 등 네 종류의 범주로 나누었다.³⁾ 홍콩에서 발행한 가정 폭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하는 아내들은 “거의 매일 우울증을 겪으며 불행을 느끼고 있고, 보통 좋아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잃으며, 맞아서 부상당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서술한다.⁴⁾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배우자들의 경우, 폭력에 의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네 번째의 상태 즉 불안과 불만족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결혼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자 임무를 나누고, 그 성취에 따라 동등하게 행복을 나누는 인격적 평등과 주관적 상호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나누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파워 구조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며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권력과 힘을 공유해야 한다.”⁵⁾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신에게 속한 영역에 있어서 결정권과 자기 주장의 권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힘이 편중되거나 불평등하게 될 때,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폭력과 같은 심각한 형태의 왜곡된 해결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때로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 본문을 상명하복의 전통적 가부장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남편의 희생의 개념은 희미해져 버린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과격한 상호성과 파워의 자기 희생적 양도를 지시하고 있다.⁶⁾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버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아내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메시지는 자칫 교회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부다처를 고수하는 미국 텍사스의 YFZ (Yearning For Zion) 농장의 몰몬교의 근본주의 리더인 Warren Jeff는 어린 10대의 아이들까지 남성들의 아내로 삼으면서, 성경의 절대 복종 문구를 하나의 분과 통치 이념으로 오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전통적 가르침도 유교적 남존여비의 사상과 부합하여,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이념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선별적으로, 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편의적으로 선택한 오류이다.

물론,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여, 오늘날 많은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결혼 질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자체를 오래된 것이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성경은 오히려 쌍방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지, 결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말하지 않는다. 결혼에 대한 성경

의 메시지는 현대 가족이론에서 말하는 평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이상으로 남녀 상호적인 의무와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 질서와 의무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들의 남편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면서 (5:22), 동시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5:25) 하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면서 (3:1), 동시에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understanding*)을 가지고, 연약함을 이해하며, 생명의 유업의 공유자로 인정하라고 도전한다 (3:7). 성경은 결코 아내 없이 남편에게만 명령하거나, 남편 없이 아내에게만 명령하지 않는다.

부부 관계의 동등성과 상호성이 무시될 때, 결혼은 일방적인 독재가 되거나, 힘의 균형이 상실된 언어, 심리적, 육체적 폭력의 확대 관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일단 시작된 폭력은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정 폭력은 공격과 방어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가정의 파괴로 치닫게 되기도 한다. 특히 아무런 제재 없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 가해자가 되게 하고, 고통을 이어주는 트로마(*trauma*) 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의 억제를 위하여 가족 권력의 균형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 폭력의 문제를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가족 권력의 흐름을 모니터 해야 한다. 병적인 권력구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환자 (*identified patient*)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권력 구조의 변화와 균형을 세우기 위해 희생자의 내적 저항(*resistance*)과 자기 주장(*assertiveness*)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또한 동반의존(*codependence*)을 극복하고, 폭력이 첨가된 가족 항상성(*homeostasis*)을 극복하게 하는 변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신학적, 상담학적 의미에서 성령님의 인내와 배우자 이해의 지혜가 깊어진다면 폭력의 부부 관계가 한층 성숙한 상호적 평등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

1) 힘의 불균형 구조로서의 부부 폭력

심리학자 Freud의 성 심리학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공격성은 모든 개인에게 내재된 공통적 습성이다. 어린 아이들에 의한 공격성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지나면서 이성 부모를 배척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성기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적절한 이성을 찾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공격성은 없어진다고 Freud는 주장한다. 이후에 그가 내세운 “죽음의 본능” Thanatos는 Eros와의 대칭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서 발생한 다소의 부정적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향한 죽음의 에너지로 죽음과 파멸을 부르는 에너지로 대치된다. 이것이 곧 개인에게 있어서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

특히 그의 문명과 불만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 따르면 인간 개개의 성적 충동과 사회적 도덕 사이에서 인간의 불만, 공격성, 증오, 그리고 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개개인 속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파괴적 공격성은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반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사회 문명의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박성에 대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Freud가 인정한다. 물론 어떻게 공격성을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그가 말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내재된 충동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는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Freud의 고전적 설명들은 때로 현실과 거리가 먼 원인들을 제공하며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든 이론적 고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론이 현실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인간 경험에서 윤리적 요소를 제외시킨 제한성을 가진 이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소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갈등과 공격성에는 감추어진 내적인 근원이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부부 폭력의 이면에도 감추어진 개인적, 시스템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폭력을 이용한 배우자의 컨트롤과 불안 조성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무의식적 심리 배경과 관계의 갈등, 그리고 크게는 사회문화적인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부부 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 폭력은 동등성과 상호성을 깨뜨

리면서 결혼 관계를 한 쪽의 일방적인 독재가 되게 한다. 힘의 균형이 상실된 언어, 심리적, 육체적 폭력의 확대 관계가 병적 구조로 고착되어 간다. 특히 아무런 제재 없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 가해자가 되게 하고, 고통을 이어주는 트로마 (trauma) 이다. 그나마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방어와 폭력은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희생자가 최소한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고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희생자의 희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성 우울증에 관하여 탁월한 목회 신학자인 Christie Neuger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 자체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 한 남성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 곧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자기 주장, 실업, 특권 없이 반복되는 가사 노동 등 모든 일들이 여성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자체가 남성에게는 오히려 우울증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거꾸로이다. “공평하지 않은 가사와 육아의무 분담, 폭력의 위협, 결정에 있어서의 불공평 등”⁷⁾ 등은 결혼에 있어서 여성을 정신적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이다. 배우자에 의한 육체적 학대 역시 우울증의 중요한 전조이다.”⁸⁾ 결국 우울증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힘의 문제로 귀착된다.

한 여성이 자신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기 주장 assertiveness), 혹은 남편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없다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기대), 그 여성은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곧 재난이라고 (destructive) 느낄 때, 그 여성은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결국 지위(agency)의 문제이다. 여성들이 결혼 관계있어서 상대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특히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통해 극단적인 무기력감을 함께 경험할 때), 이 여성들은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확대 된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힘의 문제는 가족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매체나 광고 등 확대된 문화 구조에서도 여성들의 우울증에 중심적인 문제이다.⁹⁾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때, 분명히 힘이 박탈된 쪽은 병을 앓게 된다. 힘의 불균형과 지위의 불안정은 자신의 존재감조차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힘의 박탈이 강한 쪽의 일반적인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 이어질 때, 그 정신적 황폐와 육체적 괴멸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⁰⁾

2) 부부 폭력의 원인

목회 신학자 Howard Clinebell 은 부부갈등의 원인 가운데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된 신경증적 필요 neurotic needs가 있다고 말한다.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서로 함께 채워주어야 할 건강한 필요가 있지만, 신경증적 필요는 현실적 필요 이면에 숨어있는 오래된 필요로서, 배우자가 채우기 힘든 것이라고 말한다. “의식적 단계에서는 이것을 원하지만, 정작 무의식적 단계에서는 그 반대를 원하는 것이다.”¹¹⁾ 이런 무의식적 필요는 다른 일상적 필요와 섞여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때로 신경증적 갈등은 현실의 갈등과 뒤섞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전문가라 할 지라도 돕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다.

때로 매체에 나타나는 통계를 보면, 가정 폭력의 가장 흔한 이유가 알코올이라 말한다.¹²⁾ 물론 술에 취해 폭행을 행사한 이들은 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술에 의한 폭행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알코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인격적 기능과 가족 시스템 안에서 이미 고착된

문제와 갈등이 알코올을 통해 폭행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알코올은 폭력을 표현하는 중개적 도구일 뿐, 부부간의 갈등은 그 이면에 이미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혼한 가정에 폭력이 많은 이유는, 앞선 결혼에서 부부 갈등을 제대로 풀 수 없었던 이들이, 갈등 해소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결혼하여, 동일한 궤도를 반복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치과학자로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국제적 갈등의 전문가인 Rudolf Rummel에 따르면¹³⁾ 한 개인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비강제적 방법,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의 시도, 그리고 신체적 협박이나 조종과 위협을 통한 강제적 힘의 사용 등이 있다. 부부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이해의 차이,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차이, 애착 수준의 차이,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나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¹⁴⁾ 이러한 갈등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되던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이나 낭비 또는 폭력 등 충격적이고 상해가 되는 일을 계기로 표면화” 되는 것이라고 한다.¹⁵⁾

대개 폭력 남성들의 특징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 질투심이 강하며, 사회적 직업이 불분명하고, 성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신체적 협박이나 강제적 힘을 사용하는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뚜렷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아 온 내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성적 혹은 내재적 갈등과 더불어, 인간 공격의 성향은 개인의 욕구 좌절과 사회적 불만을 촉매로 하여 가장 가까운 가정의 폭력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처한 좌절을 연약한 가족 구성원에게 해소하고, 일단 시작된 폭력이 더욱 잦아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정 폭력의 특징이다.¹⁶⁾

이런 폭력이 가정에 고착되는 데는 먼저 가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컨트롤과 조종에 대한 병적 집착이 이유가 된다. 이것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에 는 개의치 않고, 단순히 자신의 신경증적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집착이다. 이것은 화풀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알코올도 이런 집착적 증세를 표출하는 계기가 될 뿐 그 자체가 폭력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기에, 폭력 외에는 이에 대한 통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오직 폭력의 행사를 통해 권력과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신만의 일방적 특권을 누리고 유지하려 한다.

그와 함께 주로 가정 폭력의 희생자로 고착되는 데는 아내들에게도 이유가 있다. 이것은 아내들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반응과 책임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맞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시급성을 갖는 응급처치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내면화시키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으로 남편을 의존하고 있어서 남편과 그대로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 폭행을 방조한다. 물론 거기에는 남편의 보복이나 더 심한 폭력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폭행을 남성성의 특징이라 믿기도 하는 피학적 자기학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런 피폭행자의 “안정된” 사고구조 때문에 폭행이 방조되고 오히려 방해 없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남편 의존적 사고를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 시점에 남편을 떠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같다. 폭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편을 떠날 경우 아내들은 생명의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코 아내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자 및 가해자들은 이들을 괴롭히며 추적하여 따라간다. 그러므로 가정 특히 부부 폭력의 치료목표는 아내와 남편의 별거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환경 자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¹⁷⁾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정의 폭력은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건이다. 아내를 때리는 가족은 틀림없이 그 아이들을 때리고 있고, 심지어 마당에 사는 애완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¹⁸⁾ 특히 알

코을 중독인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이지만,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할 때이다.¹⁹⁾ 혹은 거꾸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강제적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거나 자신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폭력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데는 학습과 반응의 패턴을 따르기도 한다. 가족의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하려 할 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학습한 폭력적 잠재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폭행 답습은 선별적이어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폭력이 결정적인 학습 이론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부관계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²⁰⁾

3) 부부 폭력의 결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폭력 가해자의 특징을 가정 폭력에 관한 홍콩 정부의 보고서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치밀한 조사를 통해 매우 실제적으로 정리된 보고서이며,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홍콩에서의 가정 폭력 역시 그 정도는 심각하며, 폭력 구조 아래 있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¹⁾

즉 폭력 희생자들의 경우, 폭력 사건의 치료를 받으러 오더라도 다친 시간과 치료받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상당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질문자의 시선을 피하고, 설명할 때에도 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가정에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인한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알려질 경우 보복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이들의 개인적 삶의 특징은 매일 그리고 온종일 깊은 불행을 느끼며,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행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알

코올에 의존하고, 결국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항상 아프고, 식욕 장애로 체중을 잃거나 살이 쪼인다. 이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아침에 지나치게 일찍 일어나면서, 쉬지 못한다. 자존감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으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기도 한다. 살인 혹은 자살의 충동이 분명하고 이를 실제로 시도하기도 한다. “공포, 고도의 불안, 우울증, 편집증, 혹은 인격의 분열” 등의 증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²²⁾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폭력으로 학대할 때, 그것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트로마가 된다. 특히 엄마가 폭력의 학대를 겪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무려 열다섯 배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²³⁾ 결국 이들의 성장은 매우 심각한 타협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즉 식욕을 잃거나 갑자기 살이 찌고, 두통, 복통, 두드러기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다. 이들 역시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악몽과 어두움에 대한 공포 등이 따른다.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이상이 동반된다. 즉,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증상을 보인다.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잃고, 학교생활에서도 관심을 잃고, 집중력과 성적이 떨어진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고, 가출을 감행하며,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미래의 재난과 자연 재해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 심각하게 낮은 자존감 가운데 고통당한다.²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더 고통스럽고, 맞는 배우자가 더욱 고립된 경우는 가해자인 부모와 자녀들이 동맹을 맺게 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때 아이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맞는 부모를 함께 비난하고 학대하는 일에 일정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폭력으로 균형이 깨어져버린 부부 관계의 틈에서 생존하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이후에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로 발전하며, 그 성장에 있어서 혼란과 죄책감을 가중시킬 것이다.²⁵⁾ 무기력하게 엄마의 폭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은

“생존자로서의 죄책감”(survivor's guilt)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가해자로서의 폭행자의 특징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어디서나 불쑥 불쑥 나타나며, 배우자를 따라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항상 체크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직장에 가서도 훼방을 놓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배우자의 바깥출입을 막기도 하며, 배우자가 친구나 친척,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을 속여 친구인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

가해자들은 배우자에게 욕을 하고, 모욕감을 주며, 모든 일에 배우자를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상대방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돈, 차, 신용카드 등을 압수한다.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자신이 대답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이 배우자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폭력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 운전을 함부로 하고, 벽을 치고, 탁자를 내리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넘어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술이나 마약 중독자이며,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흥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모든 사건에 관한 비밀이다. 이것은 흔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근친상간에서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은폐 방법이기도 하다. 이들은 철저히 모든 것을 은폐하면서, 만일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친밀성과 비밀 유지의 약속을 깨뜨린 희생자에게 있다고 세뇌한다. 가까운 가족 혹은 친인척에 의한 어린 자녀들의 성폭력이 오랫동안 연속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정서적 컨트롤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성을 공격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비밀이 노출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해자 자신들의 공적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회상시키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발설하는

희생자야 말로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이라고 매도한다.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고, 공격적인 제재가 가해질 때까지, 이들은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겨우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만큼 치밀하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학대한다.

4) 부부 폭력의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학적으로 폭력은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증가하고, 사회 하부 구조의 기대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²⁶⁾ 같은 맥락에서 가족 시스템의 변화와 구성원 상호간에 기대의 변화에 따라 부부간의 폭력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범주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에 의한 폭력 이상으로 가족 내에서의 안정된 위치를 차지한 배우자 혹은 타인이 지지 혹은 방조하는 형태에서의 다양한 억압 구조가 존재한다.²⁷⁾

특히 폭력을 “학습된 반응”이라고 이해할 때에는 폭력의 행사를 통하여 폭행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은 매우 “이성적인” 행위이며,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의도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알코올을 통한 우발적 행위로 치부하는 습관은 알코올을 폭력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알코올을 마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폭력은 구체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²⁸⁾

물론 부부간 폭력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이 언제나 뚜렷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발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폭력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무의식이라는 것도 배우자의 직접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평소에 느끼는 불공평한 현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투사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의 갈등을 직시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으며, 결국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폭력만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 번 그렇게 습관화된 폭력은 그 심리적 우월감과 자신감으로 인해

다시금 의지하는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고, 피해를 당하는 배우자의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의존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적 관계를 멀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은 습관성과 그릇된 안정감을 조성한다. 폭력을 통하여 가해자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을 위협 내지 컨트롤하게 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체적, 심리적 위협으로서의 폭력은 심각한 재난과 같이 널리 퍼져있다.

한편 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남성에 의한 폭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 한다.²⁹⁾

특히 개인적 긴장의 완화에 있어서 Carol Gilligan의 주장과 같이 남성들은 “주로 개인적 권리의 관점을 강조하고 케어의 관점은 무시”하며 행동한다.³⁰⁾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케어에서 제외시키는 남성들과는 달리, 자신을 제외시킬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먼저 케어 하는 성향이 있다. 남편은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부적절함과 남편 행동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폭력이 고착화되는 과정에 이런 내면적 관점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성의 차이나 호르몬의 작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 환경적 요소들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Neuger는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친근한 관계에서의 폭력(강간과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공개적인 혹은 은폐된 차별을 광범위하고 당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자존감과 정서적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³¹⁾ 가정 내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구조화된 남성 위주의 특권과 결정권이 당연하다는 문화적 사고가 결국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가해자를 독재자로, 희생자를 고통당하는 환자로 고정시키고 있다.

배우자 폭력을 겪는 여성들이 결국 그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 문화적 성 역할과 전통에 의한 학습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LaViolette와 Barnette는 전통적으로 남성에게는 “독립과 능력 independence

and competence”의 특징을 지워주는 문화가 여성에게는 “의존성 interdependence”의 라벨을 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를 성공과, 여성을 관계성과 연관관을 시키는 문화는, 남성에게 공격성과 학대의 권한을, 그리고, 여성의 공격성은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만 제한시키는 문화라고 이야기한다.³²⁾

가정 폭력이 권장 혹은 최소한 묵인되는 분위기는 나라와 문화를 막론하고 계속되어왔다. 인도에서의 다우리 전통이나 이슬람 전통에서의 명예 살인은 결혼 비용을 적게 치른 며느리나 부정을 저지른 딸들의 핍박과 존속 살해가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유교적 가치 아래에서 한 가정에서 아내인 여성은 남성의 대를 이어주는 수단으로 치부되어왔다.

부계혈통을 이어 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의 결혼은 적대적 환경으로서의 시댁에서의 심리적 생존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럴 때, 전통적 남성들은 아내를 위하기보다는 자손보존을 위해 다른 여성을 찾았고, 그것은 가족의 지원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결혼 당시에 시가에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심지어 신랑이 병을 앓아도, 그것을 새로 들어온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전가시키는 “투사”(projection)와 “비난”(blame)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것을 보면 여성에게 지워지는 사회문화적 부담이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여 부과됨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조차도 결혼 선물 혹은 살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폭행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최근의 어느 인터넷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일흔이 넘는 나이의 남편은 아내를 길들이고 복종하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 지난 40년간 아내를 폭행해 왔다.³³⁾ 한 텔레비전의 고발에 따라 밝혀진 이 부부 폭행 사건에 따르면 아내인 할머니의 머리와 몸에 수없이 많은 피딱지가 앉았는데도, 그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아 때릴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욕하고 아내의 옷을 찢으면서, 아내를 그렇게 짓밟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자신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자는 99% 자기를 도와야 하는데, 때려야 말을 듣기에 때란다는 것이다. 여성 보호센터에서 거

우 말문을 연 할머니는 이제 폭력에 익숙해져서, 아예 변화에 대하여 체념하면서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이제 다시 맞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통 없는 날에 대한 소망을 그나마 회복하게 되었다.

결혼하는 여성이 담당해야 할 일방적 폭력과 횡포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남존 여비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다. 이처럼 남성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폭력의 문화는 수많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비난조차 반항적인 여성에게 씌워져 왔다. 문제는 이런 일정한 문화 속에서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얻는 반면, 피해와 희생에 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가족 폭력과 트로마에 대한 연구를 했던 Judith Herman은 지적하기를 “모든 가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부부 폭력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희생자는 주변 사람이 고통의 짐을 져 줄 것을 기대한다. 희생자는 행동, 적극적 참여,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³⁴⁾ 그런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쉽게 잊음으로써 주변과 교회는 가해자의 행동을 은밀하게 지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2. 부부 폭력에 대한 목회 신학적 대안

1) 목회 상담적 개입을 통한 힘의 균형 회복

Rummel에 따르면 갈등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서로 다른 기대와 현실을 가지고 있음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잠재적 갈등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논쟁과 지속된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폭력의 방조 내지 폭력에 대한 인내는 가족 체계상 불평등한 힘을 지속시키는 가족 항상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한 뉴스에 따르면 폭력 남편보다 희생자인 아내가 자녀를 때린 경험이 더 많다고 한다.³⁵⁾ 이것은 희생자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당하는 동안 받는 상처

와 고통은 결국 자녀 양육에도 엄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이터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에 부모에게 맞은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아내를 때리는 남편 혹은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 65.5%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가정 폭력은 대물림 한다고 할 만큼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다. 폭력을 목격한 경우,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자녀들의 미래에 가능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정 폭력의 억제는 가족 권력의 균형 회복과 함께 간다. 희생자가 희생만 당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권력 구조의 변화와 균형을 세우기 위해 희생자는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 적절한 저항(resistance)과 자기 주장(assertiveness)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동반의존(codependence)을 극복하게 하고, 폭력이 첨가된 가족 항상성(homeostasis)을 극복하게 하는 변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상담자를 이 문제 속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있어서 혼자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이를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상담자들은 가족 폭력의 문제를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가족 권력의 흐름을 모니터 할 수 있다. 병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전문가의 권위로써 직면(confront)하고, 그 그릇된 구조 속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identified patient)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empowering) 건강한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대개 알면서도 폭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희생자를 위한 자원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여성 혐오적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호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현실을 직면하기 꺼려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봤자 돌아오는 것은 보복과 두려움, 그리고 가해자 편에 선 법이나 정의, 심지어 목회자의 무관심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하여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침묵함으로 가해자를 은밀히 지지하고, 폭력이나 억압의 관계를 방조하는 의미에서 기독교적 복종의 개념이 오용된 역사가 있었다면, 신학은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목회자는 가정의 위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 폭력 가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전문직과는 달리, 목회자는 적극적인 목회적 개입(pastoral intervention)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학대나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가능한 치유책이 되지 못했다. Neuger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가부장적 권력을 지지하는 신학적 교리에 갇혀서”³⁶⁾ 맞고 강간당하는 아내들을 근친 폭력에서 구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그 고통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희생자를 다시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목회(상담)자가 폭력 가정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는 고통당하는 희생자의 사정과 고통을 듣고, 그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고, 폭력을 당하는 희생자가 말하도록 기회를 줄 때, 비로소 그 잃었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덮여 있던 목소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할 때, 이것은 개인에게 격려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 희생자에게 그나마 공의의 보상을 주는 것이다.

희생자를 통해 가정 폭력의 비밀이 드러날 때, Neuger의 지적대로, 가해자는 희생자의 신뢰성 자체를 뒤흔들려고 할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가해자의 인격적 신뢰성을 믿는 사람들은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회 상담자와 믿음의 공동체가, 공적 영역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도 사적 영역에서 배우자 폭력과 같은 악과 불의를 지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가해자의 반복된 비밀 유지 의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희생자의 시각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비밀스런 폭력의 희생자는 회복의 새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2) 희생자의 공격성에 대한 긍정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의 Kathleen Greider는 폭력성 혹은 공격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보통 공격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

을 폭력성 혹은 상해와 일치시키지만, 예를 들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질병과의 싸움은 오히려 질병 퇴치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³⁷⁾ 이와 더불어 공격성을 대개 남성의 기질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여성들의 공격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하는 공격성의 이론들에 대해 비판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공격성이 가져오는 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이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한 형태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보여주는 일련의 자기 주장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갖 언어적, 심리적 폭력과 더불어, 아내를 인격적인 대화의 대상으로서 제외시켜버리는 남편에게, 아내가 물건을 던진다고 해서, 아내의 폭력 행위 자체만을 정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에는 폭력 행위의 원인과 상황이 전체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은 감정적, 인지적, 혹은 신체적 형태를 띠 수 있다. 공격성은 개별적 혹은 관계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뜻과 결과를 가져온다...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동기들을 보면 자기표현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 다른 이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성, 당황스러운 일에 대한 반응, 위협에 대한 방어,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 등이 있다.³⁸⁾

Greider는 특히 공격성이 인간의 창조 명령, 곧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필수적인 기질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격성 그 자체만을 떼어서 볼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 사랑(love)이 함께 가미될 때, 거기에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생의 생존과 충만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⁹⁾ 그런 의미에서 공격성은 곧 개인의 자기 주장(assertion)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다음에 기술된 사건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가 지나쳐 결국살인과 가정의 파국으로 치달은 극단적인 실례가 있다. 물론 주된 폭력자인 아버지의 폭력을 방치했다라면 자신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한 사

람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무지한 폭력의 고착은 모든 가족을 병들게 하고, 결국 자신의 파국으로 끝맺는 것을 보면, 가정의 파위가 일방적으로 남용되고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의 아버지는 가정이란 곳에 무심한 사람이었다. 가장으로서 의무에도 관심이 없었다. 틈만 나면 아내(70)와 자식들을 때렸다. 따로 차린 살림에 생활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4월 초순 어느 날, 당시 27세의 차남이었던 김 씨는 서울 사당동 집에서 아버지와 술잔을 나누며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흥기를 휘두르자 김 씨는 흥기를 빼앗아 아버지를 찔러 살해했다.

이런 비극의 중간에는 정작 이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아내가 있었다. 자신이 이혼하고 갈라섰더라면 이렇게까지 비극이 진전되지는 않았으리라는 뒤늦은 후회였다. 결국 이렇게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희생자 스스로 피학적 환경에 자신을 방치하며,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죄의식을 느끼는 무기력이야말로 이런 일방적 폭력 환경을 지속시키는 그릇된 공헌 요소이기도 하다.

결혼에 있어서 상호적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방법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힘의 균형을 위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언약의 약속이 상호간 미리 세워져야 한다.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가정과 외부의 자원을 통해 속히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남성들의 권력적 우위를 당연시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성경적

상호성과 질서를 따라 관계를 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나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연고 없이 공격을 당할 때, 이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를 감추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에 비해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고전이 되었다.⁴¹⁾ 화를 표현하지 않고 참는 사람은 오히려 정신적, 영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억눌린 분노의 합리적 표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적극적 진단과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절대 필요하듯, 정신 치유를 위해 때로 공격적 분석을 통한개입이 필요하듯, 부부가 함께 공존해야 할 관계의 공간 속에서, 무너진 힘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때를 맞는 당사자는 적극적인 관계 진단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목회 (상담)자가 이런 긴박한 상황의 중심에 설 때도 있다. 이에 대하여 목회 신학자 James Poling 은 폭행자를 “공황히 여기는 대면 즉 [자신의] 책임감을 요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건강한 측면으로 더불어 치유적 동맹을 맺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⁴²⁾

3) 부부의 상호성 회복과 적극적 자기 주장

성경에는 갖가지의 가정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의 폭력은 인류 조상의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결코 가정의 허구적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갈등과 강간과 근친상간, 형제간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가족들의 의견 불일치와 갈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부부관계의 유형은 매우 문화적이며, 그 당시의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남녀의 지위와 역할을 구별하여 지정하는 역할 지향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추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정 [질서를] 지지하면서도 뒤집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권세자의 모델은 곧 아내를 위

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이다.”⁴³⁾ 복음에 대한 헌신이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가부장적 상하관계를 뛰어넘어, 상호 희생적인 관계, 즉 초문화적 관계로 재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정되고, 확인되고, 거부되고, 또한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⁴⁾

서신서들을 통해 볼 때 구약의 여러 조상들의 가정이 안고 있던 남성위주의 일방적 결정 시스템 내지 일부다처의 혼란스러운 질서를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이어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에 도입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존중함으로써 그리스도 희생의 모델을 부부 관계에 실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⁴⁵⁾

베드로는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그 연약함을 포용할 것을 지시한다.⁴⁶⁾ 아내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남편의 강압적 태도나 관계는 경건 생활과 기도의 차단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내가 장차 올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적, 미래적 관계 속에서, 현재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연약한 자에 대한 존중과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부의 관계는 현대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상호 존중적” 사랑 그 이상이다. 여기에는 남편의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유추되는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 관계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적 관계가 내포된 머리 됨(headship)과 지체됨의 역할과 병렬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자기변명을 위한 태도에 대해서는 폭행의 범죄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비록 결핍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와 공동체의 도움을 통하여 폭력 대신 다른 효과적인 커

무니케이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면서 알코올을 섭취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술의 핑계를 대는 것은, 일탈 부인 이론(deviance disavowal)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자기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다.⁴⁷⁾ 보고 배운 것이 폭력 밖에 없다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핑계이다.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감정 표현은 상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폭력의 일방성과 고착을 막기 위한 방어적 공격성이 반드시 약자 혹은 희생자에 의해서도 실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강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자기 메시지(I-message)도 포함된다. 이것은 결혼 전 교육을 통하여 미리부터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여성에 의한 폭력 역시 남성의 폭력과 맞물려 상승하고 있는 만큼 남녀 상호간의 평등한 감정 표현과 집중되지 않고 공유되고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권력의 배분이 필요하다.

독점된 권력과 횡포에 대한 내적 저항(resistance)은 특히 폭력의 희생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William A. Jaekle과 Charles R. Clebsch가 Seward Hiltner의 전통적 목회신학에서의 보완한 치유 (healing), 보존(sustaining), 인도(guiding), 화해(reconciling) 등의 덕목을⁴⁸⁾ 현대 목회 신학 리더의 한 사람이 필자의 논문지도 교수인 Vanderbilt University의 Miller-McLemore가 주창하듯 저항(resisting), 힘의 부여(empowering), 양육(nurturing), 해방(libertating)으로 전환되는 것은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필연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는 수치와 죄의식이라 할지라도 그 침묵을 깨뜨리고, 진실을 말하고 죄의 고백과 회개를 거쳐, 용서와 화해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⁴⁹⁾ 이것은 곧 포용의 실천 신학(practical theology of embrace)이다. 갈등 문제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되어야 하고, 폭력의 문제는 은폐가 아니라 드러나야 한다. 매를 맞는 이는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현실을 눈감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더 나아가 안전한 공존을 위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적극적인 자기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중된 폭력이 되어 돌아올 때 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학대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호소하기도 한다. 절대적인 무기력과 일방적인 권리의 박탈을 경험할 경우, 외부에서 힘의 지렛대를 빌려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목회자 및 상담과 치료 전문가들은 폭력자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치우치지 말고, 가족 전체의 목소리와 매 맞는 이의 고통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폭행을 당하면서도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는, 그들이 남편을 떠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므로, 혹시 교회공동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다그치거나 강요하기보다 차분하게 스스로 말하는 안전한 분위기를 허락해야 한다.

목회 신학자로서 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알려진 James Poling은 목회 신학의 영역이 개인의 치유만 아니라 개인, 가정, 공동체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공언한다. 목회 신학과 목회 상담은 신학적 해석을 기초로 신학적 문제로서의 폭력의 의식적 부분을 다룰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하여 무의식적 측면까지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폭력성의 발전 과정을 감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원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신학자 Andrew Park의 지적과 같이,⁵¹⁾ 기독교가 가해자를 위한 용서의 신학은 있어도, 희생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한에 대한 용납과 치유의 신학에 있어서 빈약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폭력이 정죄되는 이면에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치유와 용납의 신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성폭행 당한 이가 오히려 태장을 겪는 이슬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적 유교에서의 남존여비에 의한 이념적 희생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행복한 부부관계의 회복은 희생자들의 묻혀버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치유하며, 개인과 시대적 정신의 오류를 지적하는 선지자적 경고를 포함한다.

결혼의 상호성과 평등한 남녀의 권리를 상하의 권위주의적 관계로 해석하는 보수적 관점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발견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Martin Buber의 주장처럼,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인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⁵²⁾ 그런 의미에서 부부 폭력은 연약한 배우자와의 인격적 상호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는 오직 한 사람에게 의해 소유되거나 전용되는 다른 어떤 수단적 관계로 전락할 수 없다.

4) 신앙적 승화(sublimation)의 자원

목회 상담적 치유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상호성을 넘어, 신학적 의미에서 배우자를 위한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폭행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승적인 폭력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먼저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필요에 따라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신앙은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 그 이상의 문제해결 역량을 허락한다.

물론 폭행의 심각성은 그 희생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신앙은 극단적 환경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보존하게 하는 자원을 허락한다.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비이성적 고통 속에서도, 때로 자신이 상승적 폭력에 기여하는 부분-즉 상대방의 폭력을 자극하는 언어와 표현이 있지 않은지 자기반성을 할 수 있게 한다.

영적 자원은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나 혐오의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다. 현실에서 가해자의 불법과 죄, 희생자의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오히려 대항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양보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멈추어 생각하게 하는 성숙한 방법이 신앙적 세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현대목회 신학적 의미에서 “용서 앞서 정의 (justice before forgiveness)”의 원리는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미 몸에 그런 신앙적 방법들을 익혀 왔고,

단순한 신음이 아닌 눈물의 승화로 가슴의 한을 이기고 달래어 왔다. 거기에 상대의 마음을 터치하는 성숙함이 있다면, 때로 고통스런 긴장관계는 신속하게 해소될 수도 있다.

사소한 부부의 갈등에서도, 공격적인 배우자에 대한 공황을 가진 거룩한 희생자가 있다면,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 변화의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한 때 폭력 관계에 있던 부부가 성숙한 상호적 평등 관계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 곧 상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성경적 변화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영적 승화의 형태로서 개개인의 인내는 폭행당하는 이의 특별한 한계, 즉 신체적 폭력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심리적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치료 자원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부 폭력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자원으로 폭력을 이겨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우선 생명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안전을 찾기 위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반화 시킨다면 자칫 희생의 구도를 지속시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영적 자기희생의 요구가 결국 가해자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적 승화와 자기희생의 자원이 심리학적 기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Freud는 인간의 자기희생 한계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이 허용하는 만큼이라고 제한한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승화(sublimation)는 인간의 본능 에너지가 어찌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방향 즉 예술로 바뀌어가는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Karen Horney 등과 함께, 정신 질병이 내적 심리(intrapsychic)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적 대인 관계(interactional)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소로 이해하였던 Harry Stack Sullivan의 승화 개념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하다. Sullivan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의 승화란 사회나 주변의 인정,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만족조차도 개의치 않고, 단순하지는 않지만, 매우 특별하고 효과적인 기술로 진정한 만족을 얻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⁵³⁾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학대를 즉시, 혹은 누구나 대인관계의 승화로 대

치할 수 없지만, 대항할 수 없는 물리적 힘에 대하여 영적 여유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유익한 기독교의 매우 독특한 자기 희생적 자원이다.

부부 폭력을 화평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신앙적 인내를 핑계로 폭력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그것은 매우 병적이다. 하지만 신앙은 최악의 절망에서도 현실에서의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특별한 자원을 제공한다.

III. 닫는 글

결혼은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의 인격적 평등과 상호적 사랑 가운데 창조와 명령과 가정의 제도를 이어가게 하신 창세기적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모든 문화를 걸쳐, 인간의 죄와 폭력성은 이 결혼의 인격적인 관계를, 힘의 불균형과 폭력으로, 상처와 희생을 남기는 학대적 관계로 왜곡시키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파워구조는 쌍방적이며 상호존중적이어야 하지만, 폭력으로 인한 상호 파괴는 전염병적이다.

더구나 전통적인 문화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한국 교회 역시 때로 상명하복의 전통적 가부장적 관점으로 부부 관계를 이해하면서, 피해자와 희생자의 관점 보다는, 가해자를 침묵 가운데 지지해 왔다. 부부의 관계를 정의하는 서신서들은 오히려 매우과격한 부부의 상호성과,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희생적 힘의 양도를 명령한다. 부부 폭력의 치유와 안전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상호성과 힘의 균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하며 복돋아 세워서, 학대적 상황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안전을 위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와 함께, 목회 신학의 새로운 모토들, 곧 저항(resisting), 힘의 부여(empowering), 양육(nurturing), 해방 liberating)의 가치가 일방적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ecology)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침묵하게 하고,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문화를 전환하고, 수치와 죄의식이라 할지라도 묵은 침묵을 깨뜨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진실을 통하여 죄의 고백과 회개를 거쳐,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침묵으로 가해자를 편들던 신학과 문화는 반드시 교정해 가야 한다. 목회 상담과 신학은 궁극적으로 상호 존중적이고 평등한 사랑과 의사소통의 관계가 가정에 회복되도록 예방과 치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더 나아가 목회 신학은 가정과 문화의 정의를 세우며, 개인의 신앙적 승화를 격려하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여, 고통 가운데 건강한 영적 자원이 건강한 부부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일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Clinebell,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Culbertson, Philip *Caring for God's People*. Minneapolis: Fortress, 2000.
- Greider, Kathleen J. "Too Militant"? Aggression, Gender, and the Construction of Justice, in *Through the Eyes of Women: Insights for Pastoral Care*, ed. Jeanne Stevenson Moessner, Minneapolis: Fortress, 1996.
- Herman, Judith L.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1992.
- Jaekle, William A. & Charles R. Clebsch.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per Torchbooks, 1964.
- Jaffe, Peter G., David Wolfe, Susan Kaye Wilson, *Children of Battered Women*. Sage Publications, 1990.
- LaViolette, Alyce D. & Ola W. Barnett, *It Could Happen To Anyone: Why Battered Women Stay*. Sage Publications; 2 edition, 2000.
- Lederer W. J. and D. D. Jackson. *The Mirages of Marriage*. 1968, in J. C. Wynn, Marriage, ed.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1.

- Miller, D. Earl. "Violence,"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Rodney Hunter. Nashville: Abingdon, 1991.
- Miller-McLemore, Bonnie J.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eds. Miller-McLemore & Brita L. Gill-Auster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Abingdon, 1999.
- Neuger, Christie C.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2001.
- Park, Andrew S.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Abingdon, 1993.
- Poling, James. *Understanding Male Violence: Pastoral Care Issues*. St. Louis: Chalice, 2003.
- Redden, Geri. Violence in the Family. <http://www.nacoa.net/famviol.htm>
- Rummel, Rudolph J. *The Conflict Helix: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person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 1991.
- Sullivan, Harry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 Company, 1968.
-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Study on Child Abuse and Spouse Battering*,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1967.
- U.S. Senate Judiciary Hearing, "Women and Violence", August/December, 1990.
- Walker, Lenore E. A. *Battered Woman*. Harper, 1980.
- . *Abused Women and Survivor Therapy: A Practical Guide for the Psychotherapis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 Wheeler, Sondra. Christians and Family,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ological Ethics*, eds. Gilbert Meilaender & William Werpehowski, Oxford, New York 2005, 349.
- 강문희 외, 「가족 상담 및 심리 치료」. 신정, 2006.
- 메디컬 투데이, 2008년 4월 13일자, mtdtoday.iamdoctor.com.
- The Sydney Korea Herald 2004년 8월 6일자.
- 연합뉴스, 2007년 3월 19일 (월)
- http://www.sangdam21.net/board/changjoboard_07.html?boardmode=read&board_id=zetyx_board_sangdam_07&header_name=sangdam_07&page=1&num=21&key=&k_field=&vnum=20 <http://www.welcomehome.or.kr/bbs/view.php?id=welcome8&page=1&sn1=&divpage=1&sn=off&ss=on&s>

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
http://www.swd.gov.hk/doc/fcw/proc_guidelines/battered_spouse/Identification_eng.pdf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newsid=20080423142017463>
http://www.swd.gov.hk/doc/fcw/proc_guidelines/battered_spouse/Identification_eng.pdf

[후주]

1) 메디컬 투데이, 2008년 4월 13일자, mdtoday.iamdoctor.com. 한편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조사결과를 통합해 보면 한국의 가정 폭력 발생률은 한 해 평균 15.2%-31.4%의 여성들이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 심리적, 성적 폭력을 합하면 미국 (Straus & Gelles, 1985)의 16.1%, 홍콩(So-kum, 1994), 일본(쇼지 요꼬, 1999) 등에 비해 두 배 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http://www.sangdam21.net/board/changjoboard_07.html?boardmode=read&board_id=zetyx_board_sangdam_07&header_name=sangdam_07&page=1&num=21&key=&k_field=&vnum=20 이 같은 가정 폭력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1년 LA를 포함한 LA카운티의 가정폭력사건은 4만 건이 넘었는데, 동양계가 약 8천 건이었고, 이 가운데 한인과 관련된 건수는 무려 6천 건으로 전체 동양계의 80%를 차지했다. 미 연방 법무부가 2000년에 발표한 ‘캘리포니아 주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6~99년에 배우자 학대 등 가정폭력사건으로 한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는 232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치는 1993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LA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달에 발표한 ‘2001년도 상담통계조사서’에는 한 해 동안 총 1762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 건수는 전체의 66.2%인 1167건으로 가정문제였다. 그 가운데서 가정폭력은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http://www.welcomehome.or.kr/bbs/view.php?id=welcome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 아울러, “호주 통계청(ABS)의 조사를 인용하면, 23%의 여성들이 동거나 결혼생활 중에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 심각하게는 살인 사건 중의 4건 중 하나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The Sydney Korea Herald, 2004년 8월 6일자

2) Judith Lewis Herman,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1992) 63, Christie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2001, 111에서 재인용.

3) W. J. Lederer and D. D. Jackson, *The Mirages of Marriage*, 1968, in J. C. Wynn, *Marriage*, ed.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 Abingdon, 1991), 676.
- 4)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Study on Child Abuse and Spouse Battering, http://www.swd.gov.hk/doc/fcw/proc_guidelines/battered_spouse/Identification_eng.pdf
 - 5)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1967 in C. Rdekop, "Power," *DPCC*, 933.
 - 6) 에베소서 5:25-33; 베드로전서 3:8
 - 7) Neuger, *Counseling Women*, 159.
 - 8) Neuger, *Counseling Women*, 159.
 - 9) Neuger, *Counseling Women*, 159-160.
 - 10) 일반적으로 폭행당하는 여성들을 묘사할 때, 교육 수준이 낮고, 왜소하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린 가정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찍이 Lenore Walker는 이것이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고, 몸집이 크고,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여성들 가운데 이런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럴수록 이런 범죄의 수치는 사실보다 훨씬 적게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Lenore Walker, *Battered Woman*, Harper, 1980.
 - 11)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84), 257.
 - 12) 2007년 3월 19일 (월) 연합뉴스 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 폭력 행위자 9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위탁된 폭력 경우들 가운데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94.8%(9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폭력 행사 원인으로는 음주가 30.8%(51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격차이(21.7%, 36건), 경제 갈등(17.5%, 29건), 부부간 불신(16.3%, 27건)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연구가 빠뜨리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음주가 폭력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는 있어도, 음주했다고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불신 등이 원인이 되어, 음주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때, 음주란 간접적인 폭력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 13) Rudolph. J. Rummel, *The Conflict Helix: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person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 1991), 강문희,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2006), 48에서 재인용.
 - 14) 강문희, 「가족 상담」, 48.
 - 15) 강문희, 「가족상담」, 48.
 - 16) Neuger의 지적과 같이 대부분의 폭력은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력이며,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는 대개 남편에 의해 시작된 폭력에 대한 자기 보호적 반응인 경우가 많다. Neuger, *Counseling Women*, 113.
 - 17) Lenore E. A. Walker, *Abused Women and Survivor Therapy: A Practical Guide for the Psychotherapist*(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56. Neuger, *Counseling Women*, 113-114에서 재인용.
 - 18) 한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비슷한 지위에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덜 남용하고, 자녀들의 성에 따른 차별도 적어진다고 한다. Kristin A. Bates, Christopher D. Bader, F. Carson Mencken, *Family Structure, Power-Control Theory, and Deviance: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to Include Alternate Family Forms*, *Western Criminology Review* 4(3), 170-190 (2003).

- 19) Geri Redden, *Violence in the Family*, <http://www.nacoa.net/famviol.htm>
- 20) Redden, *Violence*, www.nacoa.net
- 21) http://www.swd.gov.hk/doc/fcw/proc_guidelines/battered_spouse/Identification_eng.pdf
- 22) James Poling, *Understanding Male Violence: Pastoral Care Issues* (St. Louis: Chalice, 2003), 65.
- 23) U.S. Senate Judiciary Hearing, "Women and Violence", August/December, 1990.
- 24) Peter G. Jaffe, David Wolfe, Susan Kaye Wilson, *Children of Battered Women* (Sage Publications 1990), 28-29.
- 25) 강문희, 「가족 상담」, 263
- 26) D. Earl Miller, "Violence," in ed.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1), 1303.
- 27) 이것은 마치 해방신학자들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조명하듯,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정부나 기존의 관습에 의해 지지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역시 광범위한 의미에서 폭력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같다. Miller, "Violence," 1305.
- 28) Miller, "Violence," 1304.
- 29) James Poling, *Male Violence*, 17.
- 30) Philip Culbertson, *Caring for God's People* (Minneapolis: Fortress, 2000), 161.
- 31) Neuger, *Counseling Women*, 156-157.
- 32) Alyce D. LaViolette & Ola W. Barnett, *It Could Happen To Anyone: Why Battered Women Stay* (Sage Publications, 2000), 16.
- 33)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newsid=20080423142017463>
- 34) Herman, *Trauma and Recovery*, 8, Neuger, *Counseling Women*, 93-94 에서 재인용.
- 35) 연합뉴스2008년 3월 2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상담의뢰를 받은 폭력 남편 215명과 피해 아내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경우 응답자의 58%, 아내는 응답자의 73.5%가 자녀를 때린 경험 있다고 답했다. 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보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15.5%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 36) Neuger, *Counseling Women*, 96.
- 37) Kathleen J. Greider, "Too Militant"? Aggression, Gender, and the Construction of Justice, in ed. Jeanne Stevenson Moessner, *Through the Eyes of Women: Insights for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1996), 123-142.
- 38) Greider, *Aggression*, 125.
- 39) Greider, *Aggression*, 127.
- 40) 같은 맥락에서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에서의 aggression 에 대한 정의는 "a form of behavior in which persons express their rights, thoughts, and feelings without regard for the rights, thoughts, and feelings of other persons"에서 "with or without"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한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1) University of Michigan의 공중보건 및 심리학과의 명예 연구 과학자인 Ernest Harburg 는 1971년부터 1988년까지, 미시간의 192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자신의 분노를 배우자에게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 42) Poling, *Male Violence*, 20.
- 43) Sondra Wheeler, Christians and Family, in eds. Gilbert Meilaender & William Werpehowski, *The Oxford Handbook of Theological Ethics* (Oxford, New York 2005), 349.
- 44) Wheeler, Christians and Family, 349.
- 45) 에베소서 5:22 이하 골로새서 3:18-22
- 46) 베드로전서 3:7
- 47) 강문희 외, 「가족 상담」, 259.
- 48) William A. Jaekle & Charles R. Clebsch,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per Torchbooks, 1964).
- 49) Bonnie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eds. Miller-McLemore & Brita L. Gill-Auster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Abingdon, 1999), 80.
- 50) 정경자 박사는 The Sydney Korea Herald에서, 이미 고립될 대로 고립된 이들이 그나마 남은 신앙적 친구들을 잃게 될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 인사회처럼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은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의식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4년 8월 6일자.
- 51) Andrew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Abingdon, 1993).
- 52) 베드로전서 3:7에서는 남편들에 대한 권고를 통해, 여성의 연약함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훼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생활이다.
- 53) Harry Stack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 Company, 1968).

【 Abstract 】

Couple Violence and Reciprocity in Marriage Relationship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Couple violence in the family cuts through all cultures and individuals although marriage is a God's gift from the time of creation for an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Married couples have to set their relational foundations on mutual respect and trust in order to preserve balance of power in the family. However, violence in a couple derives from a serious breach of the right of balanced power in the middle of fierce couple struggles. In order to restore its balance, patriarchal culture that takes sides with perpetrators rather than with victims of family violence must be subject to change.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based on men-centerednes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must turn to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for restructuring of power distribution. In addition, victims have to receive empowerment by breaking the silence of shame of violence from the church and society. They must be also encouraged for the use of spiritual resources such as sublimation in order to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amily as long as they can endure in such brutal environments.

Key words: Couple violence, power, pastoral theology, mutuality, assertiveness